



태원전기산업 무전극 플라즈마 광원 '솔라레이'

“햇볕과 비슷한 조명 ... 식물 재배 더 잘돼요”

“솔라레이는 태양 빛과 매우 비슷한 야외 조명입니다. 식물 재배나 양식장용, 원래 색깔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경기장이나 미술관 등에 적합합니다.”

“비회전 무전극 플라즈마 광원”으로 만든 조명 솔라레이를 만든 태원전기산업의 이세용 대표이사 회장은 “태양과 같은 색깔을 내기 때문에 식물을 재배할 때나 물고기 양식할 때 더 잘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경기장에서 유니폼, 선수들 얼굴 등의 원색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의 연속성(조명이 물체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100으로 봤을 때 형광등은 70에 불과하지만 솔라레이는 98에서 99까지 나온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재배효율 20% 이상 높아 이 회장은 “솔라레이 조명으로 불을 켜주면 꽃이 잘 자라 8주 만에 출하하던 걸 6주 만에 출하했다”며 “태양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양식장 밖에 있던 작은 물고기들이 양식장으로 들어와 사료섭취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태원전기산업이 솔라레이로 장미를 키우는 화원에서 테스트한 결과 이 조명을 쓰지 전보다 장미 재배 시간이 20% 이상 빨라졌고 꽃봉오리 수도 많아졌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경기장이나 양식장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메탈할라이드 조명(수은 램프 속에 금속의 할로겐 화합물을 넣은 고압방전등)보다 태양과 더 비슷한 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 빛의 밝기, 수명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장미 출하 8주 → 6주
꽃봉오리 개수도 많아져
야간경기 조명에도 ‘딱’

‘수은-할로겐’ 램프보다
수명 길고 효율도 높아

◆10년 투자한 특허 기술 솔라레이는 램프가 아닌 내부의 전기장을 돌리기 때문에 전구가 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터 없이 가동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전구 안의 화학물질에 자기장이 가해지면서 빛이 나는 건데,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 한전에너지환경연구소장인 김진중 박사를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해 10년 만에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며 “기술표준원에서 주는 우수 신기술상 NET 인증을 받았고 국내 특허와 미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국



이세용 태원전기산업 회장이 비회전 무전극 플라즈마 광원으로 만든 조명 '솔라레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제특허도 받은 자체 기술력”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소에서 태양전지 개발용으로 구입해갔고 네덜란드, 독일 등에도 수출했다.

◆야구장 등에 판매하기로 태원전기산업은 기존에 판매하던 LED(발광다이오드)조명 외에 솔라레이를 미래 주력제품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 두 종류의 1kW 짜리 제품을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서치라이트로 쓸 수 있는 2kW 짜리 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라며

“작년 말에 출시했고 올해 시범으로 설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솔라레이를 1만개 이상 판매할 것”으로 자신했다.

태원전기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1050억원으로 LED조명과 일반

조명 등이 주요 제품이다. 현재 솔라레이는 경기 고양시 실내체육관에 시범 설치됐다. 향후 전국의 야구장, 축구장 등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민지혜기자 spop@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태원전기산업의 비회전 무전극 플라즈마 광원 ‘솔라레이’ (02)555-0500 △파이브시티의 얼굴인식단말기 (02)6264-1150 △코메트의 뷰파인더 시리얼호출기 (042)639-0005 △코소아의 물얼이 감는 샴푸 ‘더샵 350’ (031)440-8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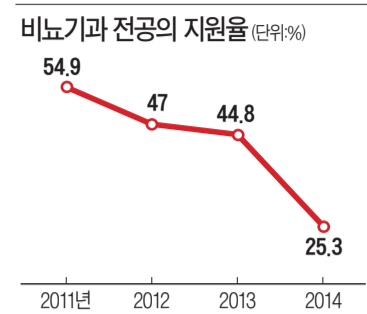
갈수록 ‘고개숙이는’ 비뇨기과

뉴스카페

발기부전, 조루 등을 치료하며 한 때 번창했던 비뇨기과가 환자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비뇨기과 폐업률(개원병원 대비 폐업병원 비율)은 2009년 51%에서 2012년 127.6%로 2.5배 높아졌다. 올해는 14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상원 비뇨기과대학(연세대 의대 교수)은 “비뇨기과 주교객층은 50대 이상 장년층 남성인데,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유지는 하는 게 어려워진다 보니 당장 생명이 지장이 없는 발기부전, 전립선 등 비뇨기질환 치료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뇨기과 병원들의 경영 위기는 전공의 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2007년 99.1%에 달했던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은 올해 25.3%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전체 92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했다. 기피 진료과로 알려진 외과(60%), 산부인과(78.3%), 흉부외과(58.7%)보다도 낮은 지원율이다. ‘비뇨기과 고사 위기’라는 말



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수련병원에서도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서울성모병원 등)은 6명 모집에 1명만 지원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4명씩 모집했지만 각 1명, 2명 지원에 그쳤다. 세브란스병원은 5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다.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은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이상돈 대한비뇨기과학회 수련이사(부산대병원 교수)는 “비뇨기과는 업무 강도가 편이지만 수입이 적고 미래가 불투명해(전공의)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레지던트 2-3년 차들이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고 다른 과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비뇨기과학회는 젊은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해외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준혁기자 rainbow@hankyung.com

JW중외제약, 새 복합필러 ‘티슈필’ 출시

피부볼륨 유지기간 늘려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은 기존 필러의 단점을 개선한 신제품 복합필러 ‘티슈필’을 내놨다. 이 제품은 고품질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이다.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자가혈 세포 등의 성장인자를 혼합해 사용하는 기술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존 히

알루론산 필러는 체내 유지 기간이 6개월 내외에 불과하지만 티슈필은 체내에서 이보다 오랜 기간 자연스러운 볼륨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기존 필러의 짧은 지속 기간에 불만이 있던 의사와 환자들에게 티슈필을 활용한 복합시술법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현대리마트 강동점 오픈

현대백화점그룹의 생활문화기업 현대리마트(대표 김희승)는 4일 서울 성내동에 ‘리마트스타일샵 강동점’을 열었다. 올해만 29번째 신규 매장을 연 것이다. 리마트스타일샵 강동점은 4개층 1400㎡ 규

모로 가구와 패브릭, 홈데코, 주방용품 등을 판매한다. 임부수 현대리마트 영업전략사 업무 상무는 “내년에도 전국 주요 상권에 대형 직영점과 대리점을 추가로 열어 공백공간을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지혜기자 spop@hankyung.com

지방 中企, 대졸 R&D인력 채용때도 혜택

年 1080만원까지 지원 받아 장기재직 주택보양 가산점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학사급 연구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인력 수급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이공계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최대

연 1080만원)를 지원하는 대상을 석·박사급에서 학사 이상으로 넓혔다. 중기청도 학사급 이공계 인력 채용시 인건비(최대 연 1080만원), 능력개발비(연 185만원) 등을 지급하는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 사업’ 대상의 일정 비율을 지방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R&D 인력이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보양 신청 시 가산점을 줘 우대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등 거점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안에 ‘지방

중소기업 R&D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R&D 인력을 양성해 장기 재직까지 연결하는 패키지 지원도 한다.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육제공·취업연계 △석사학위 취득 지원(2년) △전문연구요원 복무(3년)까지 패키지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숙련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인증하고 R&D 인력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추기경기자 gychu@hankyung.com



동아제약, 적십자사 후원 동아제약은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14개 적십자 지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총 3만명의 박카스를 지원하는 ‘박카스 자원봉사자 후원’ 협약을 4일 맺었다. 신동욱 동아제약 사장(오른쪽)과 강호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해재계

남성을 위한 남산정!!!

언제나 멋지고 위풍당당한 모습~

기력(力)이 달리신다구요? 이제 남산정으로 보강하세요!
“남산정 드시고 즐겁고 힘찬 하루하루를...”

• 당당한 남성!
남산정은 산수유, 홍삼농축분말, 마카 농축액, 남가새, 비수리(아칸틴), 누에통종초, 산화아연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였으며 기력이 떨어진 남성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어 일상 생활에서도 뿌듯함을 갖도록 배려하였다.

남산정의 매력에 빠지다!!!!

★ 남산정은 드셔보시면 안니다.
“복음이 물어일건” 드셔보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남산정은 남자의 기력을 되찾아 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양질의 초재를 추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인심하고 드실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 제조원: NH FOOD

구입하신분께 특별사은품 증정
상담문의: 1566-8027

생명의 열, 빛의 과학, 웰빙 난방기로 후끈후끈한 겨울나기

산소 태우지 않는 ‘인공태양히터’

(주)컴벨햇썬 생산자 직접 판매

기존 난방기구들 하고는 확실히 다른 난방기

이런 겨울은 유래 없는 강추위 예고와 불결기로 인한 공기질 악화, 고유가로 인한 초저전력 난방기구 웰빙 인공태양히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에 눈에 띄는 난방용품으로 난방기 점검과 건강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주)컴벨햇썬의 인공태양히터가 있다. 신체열 흡수와 동시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인공태양히터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무소음, 무냄새, 무부속의 강력한 난방력으로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인공태양히터는 최첨단 기술에 의해 빛에 속도 도달하는 거리는 무려 7m이르고 특히 소비 전력이 태양 복사열로 변환되어 전력 낭비가 거의 없으며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다.

39,900원에 불과하다. 가스나 기름 등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기 1개월 사용 난방비만으로도 인공태양히터를 구입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가스나 기름, 목재 등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기는 산소를 태우고 이산화탄소량 때문에 증가하여 눈, 머리 목이 아파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한 온풍기는 바람을 일으켜 실내 공기를 더욱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건조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인공태양히터의 장점은 밀폐된 공간의 난방 시에도 산소를 태우지 않아 환기 시킬 필요가 전혀 없으며 실내 외 사로에 열 필요 없이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인공태양히터에서 나오는 열은 자연 햇빛과 같이 인공태양 근적외선 빛열로 강한 복사열이 작용 하여 의료용으로도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인공태양 근적외선 빛열은 인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 촉진에 활발하게 활성화시켜 주므로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태양 근적외선 빛열이다. 요즘 모양만 비슷한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www.sun9999.com
문의: 031-977-0585